

미숙한 신학의 위험성

The Dangers of Immature Theology

R. A. Torrey / 김수남 역

I. 서론: 성경과 “성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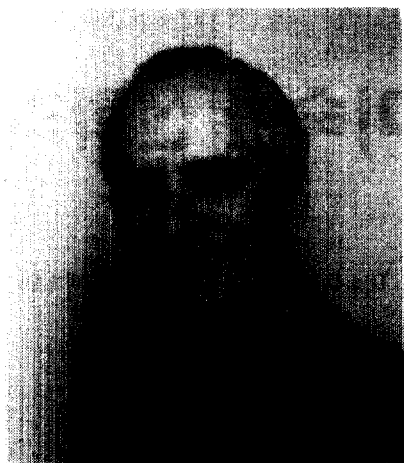
1. 사고 속에서의 성숙, 성경속에서의 성숙
2. 행위 속에서의 성숙, 성경속에서의 성숙

II. 본론

1. 미숙한 신학이란 무엇인가?
2. 미숙한 신학과 부정확한 신학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3. 미숙한 신학의 원인
4. 미숙한 신학의 또 다른 원인

III. 결론

IV. 20세기의 재난: 분열된 복음(예언)



대천덕,

본명은 Reuben Archer Torrey이며 1918년 중국 산둥성 제남에서 태어나 산둥성과 한국의 평양 외국인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했으며 미국에서 무디 성경학교, 데이빗슨 대학교,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남부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영국의 성 어거스틴 중앙신학 대학원 등에서 수학하였다. 1957년 한국에 와서 성공회 미카엘 신학원을 재건립했으며 1965년, 현재의 강원도 산골짜기인 하시미리 마을에 믿음의 공동체 “예수원”을 설립하였다. 현재 대한성공회 강원교무구 관할사제로서 성령쇄신운동을 지도하며 헨리조지협회의 고문으로,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이사장으로 사역하고 있다.

I. 서론: 성경과 “성숙”

“미숙한 신학”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면 그것이 위험한 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해 성경을 살펴 보면 “미숙”이라는 단어는 언급된 바 없지만 희랍어 “teleios”에서 파생된 “완전한”, “성인과 같은”, “나이가 찬”이란 단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과 동의어인 “tamiym”은 구약에 83번 나오며 그와 여러가지로 관련된 그리스 단어들로 telos 43번, teleioo 24번, teleios 19번, teleiows 1번, teleiowsis 2번, teleiotes 2번, teleiowtes 1번, 도합 116번이 언급되고 있다. 성경은 사람이 성숙하는 것과 완전해지는 것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1. 사고 속에서의 성숙, 성경 속에서의 성숙

이 논문에서 우리가 116절 모두를 살펴 볼 수는 없으므로 대표적인 것만 일부 살펴보도록 하자. 이를 통해 우리는 이 개념이 신학적인 생각과 분명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1) 로마서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성숙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의 반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비그리스도인들의 대중문화를 본받는다는 생각은 마치 어린 아이들이 그들을 둘러싼 환경의 영향으로 무엇이 좋고 나쁜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미숙한 것이다. 현대적인 의미로 바꾸어 말하면 이것은 인본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생각에 영향을 받은 신학이 미숙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무엇이 옳은 신학인가를 분별해야 한다고 말한다. 올바른 검증도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 대한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미숙한 것이다. 과학적인 방법이 되자면 모든 이론들은 일단 증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이것이 성숙한 신학의 특징이다. 이 말씀은 신학의 많은 부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추측이나 공식화를 일컫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만 관심을 가질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라고 묻는다. 성숙한 사도는 성숙한 행동을 하도록 해준다. 성숙한 신학은 윤리적인 것이다.

2) 고린도전서 26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의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여기에서 또 다시 성숙한 신학은 세상의 지혜나 이 세상 지도자들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여기에 기독교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가 있다. 기독교대학의 지혜가 정부의 지혜와 다르다면, 어떻게 정부가 그것을 승인하도록 할 수 있을까?(이것은 이 논문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단지 지나가는 말로 던져 볼 뿐이다.)

3) 고린도전서 14:20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간단히 말해서 이 말씀은 비록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어린 아이의 태도처럼 단순할지라도 사고하는데 있어서만은 성숙해야 한다고 말한다.

4) 에베소서 4:13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에서 우리는 성숙은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3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평안의 띠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성령은 단합하게 하고, 우리를 이어주고, 서로 화평하도록 돕는다. 미숙한 신학의 일반적인 특징은 불화이다.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성숙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포함한다고 가르쳐 준다. 단지 추론적이기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 또 하나가 되는 일에 성령을 힘입지 않은 (고린도후서 13, 14장에 따르면 교통은 성령의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사람에 의해 연구된 학문에 기초를 둔 신학은 성숙을 기대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다. 이것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

5) 빌립보서 3:15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성숙되어 있다고는 생각지 않으나 과거를 버리고 쫓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성숙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6) 골로새서 1:28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함이니”

이 말씀은 27절과 관련되어 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들 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이는 에베소서 말씀과 관계가 있다. 그것은 학문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미숙한 신학은 사람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

7) 히브리서 5:14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처럼 경험과 증거를 강조하고 성숙한 신학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8) 야고보서 1:25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 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위의 말씀에서 볼 때 신앙성경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사고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행위에서도 성숙되어야 한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 위의 말씀들이 성숙한 사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요약해 보자. 성숙한 사고는 인본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며, 유행을

타는 것이 아니라, 분별되고 윤리적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또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며, 개척해 가는 것이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며,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2 행위 속에서의 성숙, 성경 속에서의 성숙

여기에 성숙한 신학과 조화를 이룬 성숙한 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이 있다.

1) 마태복음 548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절의 문맥은 예수님이 차별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성숙한 사람은 차별하지 않고 편견을 가지지 않는다.

2) 마태복음 1921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성숙한 행위는 모든 물질의 소유를 기꺼이 버릴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데 전심전력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옛 것을 벗고 앞으로 전진한다고 말했을 때 의미하는 것이다.

3) 고린도전서 13:10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이 말씀은 사랑에 대한 바울의 유명한 말씀의 일부분이다. 성숙한 사람은 사랑을 실천한다. 그리고 성숙은 유치하고, 불완전하며,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을 버리게 해 준다.

4) 야고보서 1:4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숙한 사람은 인내하며 성장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온전해지기를 기대한다.

5) 야고보서 3:2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성숙한 사람은 말을 조심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예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결코 경솔하게 말하는 법이 없다.

II. 본론

1. 미숙한 신학이란 무엇인가?

1) 미숙한 신학은 이단인가? 부정확한 신학인가?

성숙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살펴 보면서, 우리는 이제 미숙한 신학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미숙한 신학이란 부정확한 신학과 같은 것인가? 또는 이단과 같은 것인가? 갈라디아서 5 : 20 을 통해 미숙한 사람이 이단, 분쟁, 당짓는 일을 조장한다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과 신학에서 말하는 이단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한다. 영어로 “heresy”, 한국어로는 “이단”이라는 것은 주된 집단에 대해 반대되는 집단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함에 따라 이런 부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동기는 주로 경제적 사회적 또는 윤리적 문제들과 관계가 있었지만 항상 약간의 신학적인 논쟁을 통해 정당화 되었다. 그 다수의 집단이 신학적인 논쟁을 거부했을 때 그들의 입장은 이단적인 것으로 규정되었다. 즉, 반대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던 것이다. 오늘날 “Heresy”라는 단어는 승인되지 않은 신학적 견해로서의 의미로만 사용된다. 이것은 파생적인 의미로서 원래 성경에서 이단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집단, 그 자체, 또는 그 집단의 지배층에 있는 자들이 영적으로 미숙한 그 집단의 관점을 판단하기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집단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하고, 만일 그가 소수 집단의 구성원이라면 그는 그 집단의 관점을 이해하도록 다수 집단을 설득하는 어떤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또 다수 집단이 미숙할 때 각 집단 간의 교류가 막히면 각 집단들은 서로 다른 집단을 비난하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화해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한다. 교회의 역사는 지배집단과 소수집단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서로 화해하지 못한 단절의 역사이다. 종종 소수 집단은 번창해 왔고, 어딘가에서 힘을 얻었으

며, 다른 소수 집단들과 더불어 똑같은 모습을 반복해 왔다. 미숙한 신학의 중요한 결과들 중의 하나는 분노와 증오까지 동반한 교회의 분열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사랑하고 있으며 성숙한 신학은 끊임없이 신학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사이의 단절에 교량 역할을 하려고 노력한다.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난다.

2) 요약

요약해서, 우리는 미숙한 신학이란 이단 또는 잘못된 신학과 다르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성경이 이단이라고 말한 것, 즉 분쟁을 일삼는 집단 정신을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분별되지 않고, 실제 삶에 적용하기를 꺼리며, 이 세대 문화 풍조에 순응하고 (현대의 용어로 그것은 개인주의와 인본주의를 말함), 윤리도 없으며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아는데 관심이 없고, 평안의 띠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서 전진하지 않고, 새로운 상황에 맞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적용을 깊이 생각하는 것을 꺼리는 것 등을 미숙한 신학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미숙한 신학은 이미 목적지에 도달해서 모든 해답을 알고 있으며 여기에서 더 이상 나아갈 데가 없다고 생각한다.

2 미숙한 신학과 부정확한 신학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1) 미숙한 신학은 불완전한 것이다.

미숙한 신학을 가장 완곡히 표현하면 그것이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진리만을 취해서 이것을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다른 모든 진리들을 무시한다. 여러 다른 신학들은 각기 또 다른 점들을 강조한다. 모두가 하나의 일관된 관점으로 통합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성숙한 신학을 가지게 되었거나 적어도 그러한 신학으로 가는 과정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숙한 신학자들은 도전을 받아들이면서 지적이고 영적인 연구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로지 한 영역에만 자신들을 제한시켜서 그것만이 옳고 중요한 영역이라고 말한다. 어떤 신학자들은 윤리를 무시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성령의 내적인 역사를 무시하며, 어떤 신학자들은 성령의 외적인 역사를 무시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의 유일성과 성육신을 무시한다.

2) 부정확한 신학

예수님의 유일성을 무시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성육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들은 미숙한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다. 우리는 성숙의 특징 중의 하나인 융통성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로 또 성육신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신학도 받아들일 수 없다. 사도신경은 미숙한 신학과 틀린 신학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만일 어떤 신학이 사도신경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불완전하더라도 우리는 그 신학을 통해 하나됨과 성숙에 이르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다. 만일 신학이 사도신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을 전혀 신학으로 취급할 수 없으며 그것이 교리에 합당한 것인가의 논쟁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성령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마음과 심정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전도하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오시면 내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라고 하셨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증명하신다.

3) 미숙한 신학의 관점과 실패

불완전한 신학은 감상적이다. 그것은 눈은 있되 귀가 없는 사람, 팔은 있되 다리가 없는 사람, 다리는 있되 눈이 없는 사람과 같다. 교회는 하나의 지체다. 그것이 건강하려면 모든 기관과 기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1) 성령 없는 해방

불완전한 신학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성령의 지혜와 힘,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근거로 삼지 않은채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의 해방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2) 해방없는 신학

그 반대의 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성령의 역사만을 강조하고 있는 경우이다. 옛날 미국 민속 노래에 그것이 표현되어 있다. “일하고 기도하라. 건초 위에 살아라. 그리하면 당신이 죽었을 때 천국에서 상을 얻을 것이다.” 백만의 가난한 사람들을 막시스트의 품속으로 몰아 넣은 것은 바로 이런 종류의 불완전한 신학이다.

(3) 아편과 같은 신학

불완전한 신학의 또 다른 형태는 신자들을 세속적인 즐거움에 젖게 하고, 신자들의 질병을 고쳐주어서 신자가 소속감을 찾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가지는 것, 그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것, 자아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그것은 신자들을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평범한 사람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육적인 사람으로 머물러 있게 한다. 이러한 신학들은 육적으로 사는 것을 막으려 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성령안에 사는 것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 주지 않는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행복하기만 하면 신학자들은 만족한다. 이런 종류의 신학은 아편으로 여겨졌다.

(4) 기복 신앙으로서의 신학

앞에서 이야기한 불완전한 신학의 변종은 사람의 운명이 변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았던 초기 개종자들은 선교사들이 말하고자 했던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일부 중요한 성경용어에 대한 부정확한 번역을 남겼다. 이러한 것들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불완전한 신학을 가지게 된 것을 교회의 탓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다만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를 배웠고 외

국에서 공부했던 두 세대의 한국 신학자들은 적어도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했어야 했다는 사실은 얼마간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3. 미숙한 신학의 원인

1) 어휘의 서투른 번역

(1) 복음

어휘 번역 문제 중의 하나는 “기쁜 소식”을 뜻하는 euangelia라는 단어의 해석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그 단어는 시종일관 “복의 소리”로 번역되었다. 복은 본래 이교도적이고 자아중심적인 개념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일단 받아들이기만 하면 사람들의 운명이 바뀔 것이고 이기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예수님이 “미친한 사람들을 위한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본래의 뜻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복에 대한 어떤 가르침에 덧붙여 “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한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는 옛 격언이 대부분의 한국신학에서는 무시된 것 같다.

(2) 전도

한국어로 “evangelize”를 번역한 일반적인 단어는 “전도”이다. 만일 이것이 원래의미인 “길을 가르쳐 주기”라는 의미로 이해되었다면, 비록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것”이라는 원래의 의미가 빠져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성경적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이것은 복음주의의 작업과 전혀 관계가 없으나 복음주의를 따르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사도요한에 의해 설명된 복음주의의 형태는 대개 오늘날의 교회에서 아직 들어보지 못한 것이다. “전도”는 학자들이 그들의 학식을 나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그들은 그들의 친구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증인이 아니다.

(3) 구속

부정확한 번역의 또 다른 경우는 “redeem” 또는 “reclaim” 또는 “liberate”를 번역한 단어이다. 구약성경의 율법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매우 기초적인 개념이다. 그것은 그 반대 의미인 “감금하다” 또는 “굴레를 씌우다”의 의미인 한 자어로 번역되었다. 한국교회에서 성장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이 단어가 그렇게 번역된 것에 대해 어리둥절해 한다. 교회에서 성장해 온 많은 사람들조차도 그 문제에 대해서 결코 생각하지 않았고 그것이 “속박하다”라는 의미일 것이라고만 계속 생각해 왔다.

(4) 교통

성경 번역에서 위에서 말한 것보다 더 심각한 오역은 “koinonia”라는 단어와 그것과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들이다. “koinonia”에 대해서는 17가지의 단어들이 한국 성경에 사용되어 왔고 그 개념이 모호해졌고 무시되어 왔다. “koinonia”가 의미하는 것에 대한 혼동은 한국의 대다수 성직자들이 중국의 성경 번역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고린도후서의 핵심 말씀인 13장 13절(중국 성경에서는 13장 14절)에 언급된 “koinonia”라는 단어는 성경에서와는 다르게 미신적인 색채가 짙은 개념인 “감동”으로 중국에서 잘못 번역됐다. 성경에서 그것과 가장 밀접한 동의어는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다. 그러나 그것은 감동과는 전혀 다르다. 축복을 준다는 뜻에 “감동”이라는 단어가 사용됨으로써 한국교회의 신학은 밀바탕에서부터 근본적인 결함을 명백히 드러낸다. “koinonia”의 진정한 의미는 쉽게 간과된다. 성령의 교통을 차치하고라도 성령의 역사의 본질이 정확하게 이해될 수 없고, 그 본질이 교통하는 것인 교회의 본질도 정확하게 이해될 수 없다.

(5) 교회

교회라는 단어도 부정확하게 번역되었다. “ekklesia”는 “부름받은 사람들” 즉, 공회당을 의미한다. 한국어로 그것은 “사회를 가르치는 것” 또는 “만남을 가르치는 것”이 된다. 이것은 신약성경에서의 “ekklesia”라는 의미와는 아무

런 관계가 없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의 여러 접촉을 통해 불완전한 신학을 배우게 될 것이다.

(6) 충만

한국어 성경에서 심각한 오역은 그리스어 “pleroo”와 그것의 동류어이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 학자들의 잘못은 아니다. “pleth-” 어근을 가진 단어들 간에는 아무런 차이점이 없다고 시종 주장해 왔던 것은 바로 서구학자들이다. 오늘날 컴퓨터에 의해 가능해진 비교학문이 용이해지면서 “충만”이 “pleth-” 어근을 가진 단어들에 대한 가장 적합한 번역으로 재빨리 자리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충분” 또는 “포화상태”(보통 긴 기간 또는 영원)을 의미하는 다른 단어들은 “pler” 어근을 가진 단어들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것이 성령의 교리에 영향을 미칠 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지난 85년 동안 동양교회뿐 아니라 서양교회에서도 지속되어 온 긴장을 완화시킬 것이다.

4 미숙한 신학의 또 다른 원인

1) 찬송가

찬송가 문제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영역이다. 한 유명한 시인이 “내가 한 나라의 노래를 쓰기만 한다면, 그 법은 누가 만들어도 상관없다”고 했듯이 노래가 법보다 민족을 단결시키는 데에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만일 그 노래가 미숙하다면 그것이 미숙을 더욱 조장하게 될 것이다. 한국교회에서 불려진 찬송가들은 오랜 시간을 걸쳐 형성되어 온 것이지만 그것은 미숙한 찬송가이다. 대다수의 찬송가들은 Moody Sankey의 부흥양식에서 따온 것이고 단지 초신자들에게만 적용될 뿐이다. 여러 해 동안 신앙생활을 해 온 그리스도인들, 젊은 사람들, 교회에서 성장해 온 사람들을 위한 찬송가는 거의 없다.

2) 시편

성경에서 찬송가라고 할 수 있는 시편의 많은 내용을 찬송가에서는 빼 버렸다. 시편은 공의를 위한 외침에 상당한 부분을 할애했는데 이것은 보통 한국 찬송가에는 실리지 않았다. 또한 시편은 거의 대부분이 정의로운 생활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들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적으로부터 보호받는 것과 관계가 있지만 지금의 찬송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만 몰두하고 이후에 하늘나라에 가는 것에만 몰두할 뿐 윤리적인 내용은 전혀 없는 것이다.

3) 역사적인 배경

(1) 구약성경의 교회

자유로울 때의 교회의 임무와 박해받을 때의 교회의 임무를 분별하는데 실패한 것은 옛날부터 있어온 문제이며 그것의 대부분은 심각한 미숙을 낳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조화를 준다. 구약성경의 대부분은 정치적으로 독립된 민족을 가진 사람들을 해방시킨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들이 속박되어 있었을 때라도 모세와 다니엘,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은 책임의식과 힘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은 그들이 어떻게 공의를 위해 그들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해 왔는가를 강조하는데 중점을 둔다.

(2) 신약성경의 교회

신약성경 시대에는 교회가 거의 특권을 가지지 못했고 또 영향력 있는 인물도 없었다. 우리는 성령의 교통이 정치적인 왕국의 역할을 대신한 것을 볼 수 있다. 교통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며 공의가 이루어진다.

(3) 교부

소위 전기 니케아 교부들은 어떤 특권도 권력도 가지지 않은 박해 받는 교회의 입장에서 신학을 썼지만, 반면에 후기 니케아 교부들은 로마 황제의 권력과 비견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지지하고 후원할 수 있는 교

회의 입장에서 신학을 썼고 갑자기 교회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구약시대 왕국들과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럼에도 후기 니케아 교부들의 신학은 그들의 전임자들의 신학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자신들의 책임을 떠맡지 못함으로써 그들은 Nestorian들과 Donatist들, 그리고 이슬람 쪽으로 거의 완전히 기운 다른 집단들의 불만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4) 현재의 상황

1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교회의 거의 모든 공식적인 신학들은 여전히 똑같은 심각한 결함으로 고통받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은 중국에서처럼 박해 받고 힘없는 지하 교회들을 위해서는 적당하다. 그러나 자유롭고 능력이 있는 교회를 위해서는 공의의 신학이 필요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런 필요를 느끼고 그러한 신학을 공식화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른 대부분의 신학을 거부해 버렸고 마침내는 그들의 신학도 미숙하고 결함이 있고 불완전한 신학들과 같은 것이 되어 버렸다. 그들은 너무나 필수적인 요소들을 빠뜨림으로 해서 그들이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들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Ⅲ. 결론

끝으로 우리는 미숙한 신학의 위험이 다음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미숙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 힘을 내분애 낭비하여 그 증인을 파멸시키고 이방인을 몰아내어 버린다.

각 집단별로 진리의 일부분은 가르칠지 모르나 아무도 완전한 진리를 가르치지는 못한다. 그것은 20세기에 접어들어 가난한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크게 실패함으로써 그들을 마르크스주의자들의 품안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그들을 혼란에 빠뜨렸고 착취했으며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을 그들에게 안겨주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 같이 그의 제자들과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그를 통해 하나가 되기를 기도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 교회가 같은 그리스도인들과 손을 잡기보다는 제한된 관점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교회를 설득하는 가증스러운 일을 사탄은 해왔다.

IV. 20세기의 재난 : 분열된 복음 (예언)

하나님의 온전한 권고는 무엇인가?

수세기에 걸친 교회 역사에서 가장 큰 비극은 20세기의 전환점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권고를 선포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Henry George가 이끄는 자유주의자와 카톨릭교도들은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절박한 경제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구하겠다고 선언했고 그들이 미칠 수 있는 모든 정력을 동원해서 가난의 원인과 싸웠다. Henry George는 그 투쟁에 지쳐서 58세의 나이에 죽어 버렸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그에게 주었던 초자연적인 능력을 그에게 일깨워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의 몸은 소진되었고 따라서 수백만의 그의 추종자들은 지도자를 잃었다.

오순절과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실증하면서 세계를 휩쓸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방언의 은사를 문제삼음으로서 그들 자신과 예수단의 나머지 사람들을 분리했다. 그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하늘의 상급을 설교했고, 당시 미국과 영어권 나라들을 휩쓸고 있던 거대한 운동을 무시했다. 즉, “땅은 나의 것이고 그것은 영원히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땅에 대한 성경적 교리로 러시아에 영향을 미쳤다.

로마 교황은 심오한 로마교황의 회칙을 출판했으나 땅에서의 재산과 그 밖에 다른 모든 형태의 재산을 구별할 때 성경적인 입장을 분명히 취하지 못함으로써 혼란만 가중시켰다. R. A. Torrey는 성령 안에서 침례교인들을 가르쳤다. 그러나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오순절파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야 하고 Georgists와 함께 일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성령 안에서 침례교인들을 가르치면서 두 번 세계일주를 하는 동안 불과 2년뒤에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는 오순절과 운동에 불을 붙였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방언을 중요시하기보다는 오히려 성경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하는데 실패했다. 같은 시기에 D. L. Moody가 아주 강력하고 능률적으로 성경적인 복음을 설교하고 있었지만 Henry George가 이끌었던 성경적인 공의를 위한 운동에 지원을 보내지는 못했다. 자유주의자들은 Henry George를 지지했으나 성경적인 기초를 가진 그의 가르침을 강조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논리와 이성에 호소하는데 만족을 느꼈다.

그들은 옳았으나 근본주의자들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 경멸했기 때문에 능력과 활력을 얻을 수 없었다. 톨스토이와 그리고 아마 도스토예브스키인가도 그 메시지를 이해는 했으나 정통교회가 회개하도록 설득할 수는 없었다. Henry George가 1898년에 죽었을 때 그에게는 선교, 성령안에 있는 침례주의, 오직 성경에 기초를 둔 경제적 정의, 교회에서 성령의 하나되심을 위해 세계를 휩쓸었음지도 모르는 완전한 복음을 위한 모든 요소들이 있었다. 그러나 Georgist들은 분열을 계속했고, 근본주의자들도 계속 분열했고, 카톨릭교도들은 그들의 분열을 오히려 환영했으며, 교량역할을 하겠다고 장담했던 영국 국교도들은 아무 것도 이어주지 못했다. 세계의 가난한 모든 사람들이 분열된 이 복음을 들었고 절망 속에서 레닌에게로 전향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하나가 된다면, 세계가 믿을 것이다”라고 했다. 만일 사회적인 복음과 성령충만한 복음이 협력하기만 했다면, 세상이 믿었을지도 모르고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선교운동뿐만 아니라 공의에 대한 성경적인 제도가 이 지구를 휩쓸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대신 하나님께서 부재하는 레닌의 막시즘이 이 지구를 덮쳤고, 피로 얼룩졌고, 절망 가운데 자란 폭력이 난무했고, 비참한 가난이 존재했고, 추악한 부도덕이 자유인 것처럼 여겨졌으며, 끔찍한 질병들이 새로 생겨났고, 농지가 풍부하고 곡식이 자랄 수 있는 세 계절이 있는 나라에서마저 대규

모의 기아가 발생하는 비참한 한 세기로 20세기가 장식되어 버렸다. 19세기의 문제들은 그것에 비하면 하찮은 것 같다. 우리는 단지 100년을 잃은 것이 아니라 100년 퇴보한 것이다. 선교운동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 100년 전에는 아무도 그 존재를 알지 못했던 종족들에게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그것이 완전한 복음을 설교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고, 배우며, 하나님의 완전한 권고를 선포하는데 협력하는 대신에 그들 자신들끼리 논쟁하는데 너무 바쁘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붕괴는 이슬람교와 뉴에이지운동들로 채워질 공간을 제공해 줄 뿐이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들이 늘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의의 옷을 덧입히소서. 우리가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버리고 눈을 밝힐 수 있다면 어떠한 회생도 기꺼이 치르게 하소서. 오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I. Introduction: The Bible and "Maturity"

Introduction. What do we mean by "Immature Theology?" When we know what we are talking about, we can decide whether it is dangerous or not. Does the Bible have anything to say on this subject? When we start looking we find that there is no Bible word for "immature," but the word for "mature" (also translated in English as "perfect," "like a grown man," "of full age"), derived from the Greek word "teleios," is an important word. The Old Testament equivalent, "tamiym" (No. 8549 in Strong's Concordance) appears 83 times and the various related words in Greek (with the number of occurrences) are: telos (43), teleioo (24), teleios (19), teleiows (1), teleiowsis (2), teleiotes (2), teleiowtes (1), teleo (25), telephoreo (1). The total number of references is 116. We can say that the Bible is very concerned for people to be mature and complete.

1. Maturity in Thinking, in the Scripture

The scope of this paper does not allow us to examine all 116 passages, but we can review a representative selection. From these we will see that this concept is clearly related to theological thinking.

1) ROM 12:2 "Be not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y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at ye may prove what is that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 will of God." This passage tells us that maturity is the opposite of being conformed to this world. Thinking that is conformed to popular non-Christian culture, is immature, like children who do not know how to distinguish between what is good and bad in the

influences surrounding them. In modern terms this means that theology influenced by humanistic or individualistic thinking is immature. This verse also says we are to “prove,” that is, to test what is correct theology. It is immature to take teaching on anyone’s say-so without testing it. The scientific method requires that all theories be tested. This is, according to the Apostle Paul, a characteristic of mature theology. This verse refers us not to speculation or to formulas about the nature of God, (with which much of “theology” concerns itself) but with the will of God. A mature Christian asks, “What does God want me to do?” Mature thinking issues in mature behaviour. A mature theology is ethical.

2) 1CO 2:6 “We speak wisdom among them that are perfect: yet not the wisdom of this world, nor of the princes of this world, who come to nought.” Here, again, the emphasis is on mature theology not being the wisdom of this world, or of the leaders of this world. This presents a problem for a Christian university. How can it be recognized by the government if its wisdom is not that of the government (“the leaders”)? (This is not the issue in the current paper: I only mention it in passing.)

3) 1CO 14:20 “Brethren, be not children in understanding: howbeit in malice be ye children, but in understanding be men.” This simply tells the Christian that in his thinking he must be mature, although his attitudes should be as simple as a child’s.

4) EPH 4:13 “Till we all come in the unity of the faith, and of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unto a perfect man, unto the measure of the stature of the fulness of Christ.” Here we are told that maturity brings unity. In verse 3, the unity is described in more detail as “the unity of the Spirit in the bond of peace.” The Holy Spirit brings unity, bonds us together and helps us to be at peace with one another. A com-

mon characteristic of immature theology is disunity. This verse also tells us that maturity involves knowing Jesus Christ. Theology that is only speculative, based on academic research by people who do not know Jesus Christ personally, and who do not have the Holy Spirit in his unifying work (i.e. the koinonia which, according to 2 Cor. 13.14, is the most important work of the Holy Spirit) cannot be expected to be mature. It is knowing Jesus Christ that makes it possible to grow up to his height. It is the Holy Spirit who does this.

5) PHI 3:15 "Let us therefore, as many as be perfect, be thus minded: and if in any thing ye be otherwise minded, God shall reveal even this unto you." We should actually go all the way back to verse 12, where the apostle states that he does not consider himself to be mature, but that he is pressing towards a goal, leaving the past behind him. He states that all mature Christians should have the same attitude.

6) COL 1:28 "Whom we preach, warning every man, and teaching every man in all wisdom; that we may present every man perfect in Christ Jesus:" this refers back to verse 27: "Christ in you, the hope of glory." To present people mature in Christ we have to bring them to the status of having Christ in them. This ties in with the Ephesians reference. It is not academic research only, it is Christ in us. Immature theology does not take account of Christ in people.

7) HEB 5:14 "Strong meat belongs to them that are of full age, even those who by reason of use have their senses exercised to discern both good and evil." This emphasizes experience and testing, as in Rom 12.2, and shows that mature theology leads to ethical behaviour, discerning good and evil.

8) JAM 1:25 "But whoso looketh into the perfect law of liberty, and

continueth therein, he being not a forgetful hearer, but a doer of the work, this man shall be blessed in his deed." It is clear from the above that the New Testament considers it very important for Christians to be mature in their thinking and their doing, as well.

9) Let us now summarize what these passages are telling us about mature thinking: It is tested, not humanistic, not individualistic, not stylish, it is ethical, knows Christ, is related to growing up in him, it is pioneering, it constantly presses on, not looking back; it is not smug, not self-satisfied, not arrogant.

2. Maturity in Action, in the Scripture

Here are several scripture passages about mature behaviour which goes with mature theology.

1) MAT 5:48 "Be ye therefore perfect, even as your Father which is in heaven is perfect." The context of this verse shows that Jesus is dealing with non-discriminatory behaviour. The mature person does not discriminate, is not prejudiced.

2) MAT 19:21 "Jesus said unto him, If thou wilt be perfect, go and sell that thou hast, and give to the poor, and thou shalt have treasure in heaven: and come and follow me." Mature behaviour includes a willingness to abandon all material possessions and to concentrate on following Jesus. This is what Paul means when he says that he forgets what is behind and presses on.

3) 1CO 13:10 "But when that which is perfect is come, that which is in part shall be done away." This is part of Paul's famous passage on love. A mature person is loving and maturity replaces childish, incom-

plete, and selfish thinking as well as action.

4) JAM 1:4 "But let patience have her perfect work, that ye may be perfect and entire, wanting nothing." A mature person is patient, allows time for growth, looks forward to completeness.

5) JAM 3:2 "For in many things we offend all. If any man offend not in word, the same is a perfect man, and able also to bridle the whole body." A mature person is careful of his words and never says anything carelessly that might damage other people or the cause of Christ.

II. Main Thesis

1. What is Immature Theology?

1) Is it Heresy? Incorrect Theology?

Having examined what the Bible teaches about maturity, we are now ready to ask ourselves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immature theology? Is this the same as incorrect theology? Is this the same as heresy? In Gal. 5:20 we see that immature people become involved in heresies, dissensions, and factions, but we must understand the difference in meaning between the word "heresy" in the Bible and its use in theology.

"Heresy" in English, or "I-dan" in Korean, refers to forming a "different group," that is, a group in opposition to the main group. As the church grew and spread in its formative years, there were people who did this sort of thing. The usual motivation had to do with economic, social, or ethnic problems, but they were always justified by some theological argument. When the majority group rejected the theological argument, that position was then defined as "heretical," that is, belonging to

an opposition group. Today the word “heresy” is used only in this sense, of a disapproved theological position. This is a derivative meaning. In the Bible, it is the rival group, itself, or the refusal of those in power to see that group’s point of view, that is spiritual immaturity.

The mature Christian tries to understand the other group’s point of view and, if he is a member of a minority group, he tries to find some way of getting the majority group to understand his group’s point of view. When the majority group is also immature, a breakdown of communications may result, with each group condemning the other. Mature Christians continue to pray for reconciliation. Church history is largely a history of such breakdowns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dominant groups and the minority groups with no concern for reconciliation. Often the minority groups have become successful, have gained power somewhere, and then have repeated the scenario with other minority groups.

One of the main results of immature theology is church division, with attendant anger and even hatred. A mature Christian is loving and a mature theology constantly seeks to bridge both the theological and the sociological gaps. It issues in action.

2) Summary

To summarize, we may say that immature theology is not the same as heresy or wrong theology, but it produces the contentious group spirit which the Bible refers to as “heresy.” We can now define immature theology as that which is untested, unwilling to go into the laboratory of real life, adjusted to the current cultural climate (in modern terms that will be individualism and humanism), has no ethics, is not concerned with knowing Jesus Christ personally, does not keep the unity of the Holy

Spirit in the bond of peace, does not press on but keeps dwelling on the past and living in the past, and is unwilling to consider new ideas and new applications to new situations. It thinks it has arrived, it knows all the answers and there is nowhere to go from here.

2.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immature theology and incorrect theology?

1) Immature Theology is incomplete

The kindest thing that can be said for immature theology is that it is incomplete. It takes one truth and makes this the whole, ignoring all other truths. Different theologies emphasize different points and if these were all coordinated into one consistent whole, we would have a mature theology or, at least, be on the way toward such a theology. But, in practice, the immature theologian does not want to accept the challenge or do the hard intellectual and spiritual work involved, and limits himself to one area, only. He says that is the only area which is "correct" or, at least, "important." Some theologians omit ethics, some omit the inner work of the Holy Spirit, some omit the outer work of the Holy Spirit, and some omit the uniqueness of Christ or the incarnation.

2) Incorrect Theology

Those who omit the uniqueness of Christ and deny the incarnation are no longer Christians. They are not immature, they are wrong. We must be careful that the flexibility which i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maturity does not become an indifference to truth. We cannot accept any

theology that does not recognize Jesus Christ as the only son of God, come in the flesh. The Apostles Creed gives us the guideline to distinguish between immature theology and wrong theology. If a theology accepts the creed, but is incomplete, we can work toward unity and maturity. If it does not accept the creed, we are not dealing with theology at all and must not waste time in "theological" discussion. Such people we must lead to Christ getting them to let the Holy Spirit control their minds and hearts. Jesus said that "When the Comforter comes he will bring glory to me (John 16.14)" The Holy Spirit testifies of Jesus Christ and verifies the claims he makes for himself.

3) Aspects of Immature Theology, examples

An incomplete theology is pathetic. It is like a person with eyes and no ears, or arms and no legs, or legs and no eyes. The Church is a Body. To be healthy it must have all its organs and functions.

(1) Liberation without the Holy Spirit

Examples of incomplete theology can be found: one is that which teaches that we must struggle for the liberation of the oppressed and exploited, but omits the source of wisdom and power, the Holy Spirit, and the source of knowledge, the Holy Scripture.

(2) Holy Spirit without liberation

The opposite defect is emphasizing the work of the Holy Spirit but showing no concern for the poor. As the old American folk song puts it, "Work and pray, live on hay, you'll get pie in the sky when you die." It was this kind of defective theology that drove millions of poor people into the arms of the Marxists.

(3) Opiate-type Theology

Another type of defective theology is that which fills the believer with joy, heals his diseases, gives him a sense of belonging, but never mentions that he has any responsibility for anyone else, that he has a cross of his own, that he is to leave everything for Christ, that he is to die to self. It allows him to continue as a self-centered person, a natural person, what the Bible calls "fleshly." These theologies do not defend living in the flesh, they just do not show the importance of living in the Spirit and being led by the Spirit. As long as the church members are happy, the theologians are satisfied. This kind of theology has been described as an "opiate."

(4) Oriental Concepts of 'Luck'

A variation on the foregoing type of defective theology is one which emphasizes changing one's luck. Unfortunately, the early converts who helped the missionaries to translate the Bible into Korean had a defective understanding of what the missionaries were trying to say and proposed a number of incorrect translations of key Biblical terms. As these have not been corrected, to this day, the Korean church cannot be entirely blamed for having incomplete theology —except for the fact that two generations of Korean theologians have now learned Greek and Hebrew, have studied abroad, and should have become aware of these problems.

3. Sources of the problem

1) Vocabulary : Poor Translations

(1) Gospel

One problem is the word "euaggelia," which means "good news," but is consistently translated as "the sound of luck." "Luck" is essentially a

pagan and self-centered concept. It implies that, once one accepts Christ, one's luck will be changed and one will be able to live in selfish ease. The expression used by Jesus, "Good news for the poor," is rarely used. Along with any teaching about "luck," there should also be Jesus' heavy emphasis on "Whoever would be my disciple, let him take up his cross and come after me." The old saying, "No cross, no crown" seems to be omitted from much of Korean theology.

(2) Evangelize

The usual word for "evangelize" in Korean is "chun do." If this were understood in its original meaning, "showing the way," that would be scriptural, though the original meaning of "telling good news" would still be missing. In practise, however, it is understood to mean "teaching doctrine." This does not have to do with the work of evangelism at all, but follows after evangelism. The type of evangelism set forth by the Apostle John in 1 John 1 is almost unheard of in today's church. "Chun do" is understood to mean learned people share their learning. They are not witnesses introducing their friend, Jesus.

(3) Redeem

Another incorrect translation is the word for "redeem" or "reclaim," or "liberate," a very basic concept, going back to the land laws of the Old Testament. It is translated by a Chinese word which sounds like the Korean word for "incarcerate" or "put under bonds," the opposite idea. People who have not grown up in the Korean church have no clue what this most important word means. Even many who have grown up in the church have never thought about the matter and have gone on assuming it means "to restrain."

(4) Koinonia

A still more serious defect in Korean Bible translation is the word "koinonia," and its cognates. 17 different words have been used in the Korean Bible, and the concept has become obscured and ignored. The confusion about what "koinonia" means is so complete that the vast majority of Korean clergy have taken their cue from the Chinese Bible, where the word "koinonia" in the key passage, 2Cor. 13:13 (13:14 in the Chinese Bible) is mistranslated as "kamdong," a concept that can hardly be found in the Bible but is very deepseated in shamanism. The nearest equivalent in the Bible is the "joy" which is the fruit of the Spirit, but even that is really different from "kam dong." By the use of this word "kam dong" in giving the blessing, the theology of the Korean church manifests a basic defect at a key point, and the real meaning of "koinonia" is simply discarded. Yet apart from the koinonia of the Holy Spirit the nature of the work of the Holy Spirit cannot be correctly understood, nor can the nature of the church, which is nothing else but the koinonia.

(5) Church

The word "church" also has been incorrectly translated. "Ekklesia" means "the called out ones," i.e. the town assembly. In Korean it becomes the "teaching society," or the "teaching meeting." This has nothing to do with what the New Testament means by "ekklesia." Korean Christians are handed a defective theology at every contact with the church.

(6) Full

A grievous mistranslation in the Korean Bible is that of the Greek word pleroo and its cognates, but this is not the fault of Korean scholars. It is the Western scholars who have consistently insisted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words on the "pler-" root and the words on the "pleth-" root. With the facility for comparative studies provided by the

computer today, it can quickly be established that “choong man” is a satisfactory translation for the words on the “pleth-” root, but that “choong-boon” or some other word, meaning “saturation,”(usually long-term or permanent) must be used for the words on the “pler-” root. As this affects the doctrine of the Holy Spirit, the resolution to this problem will relieve tensions that have lasted for the past 85 years in the church, Western as well as Eastern.

4, Other Sources of Immature Theology

1) Hymnody

When we come to the matter of hymnody, we are in an area that most theologians do not take very seriously. A famous poet once said, “I care not who may write a nation’s laws, if I may write its songs.” Songs have far more power to mould a nation than laws. If the songs are immature they will encourage immaturity. The hymns sung by the Korean church have moulded it over a long period of years, but it is an immature hymnody. The vast majority of the songs come from the Moody-Sankey revival tradition and apply to people just discovering the message of the gospel. There are few songs for Christians of several year’s standing or for young people or those who have grown up in the church.

2) The Psalter

Compared to the Bible’s book of hymns, the Psalms, there is a great deal omitted from the hymnal. The Psalms devote a great deal of space to the cry for justice. This is almost non-existent in the usual Korean hymn books. The Psalms are concerned almost entirely with this life,

with doing those things that please God and with being protected from God's enemies, but the hymnal is devoted to praising God now and going to heaven after. Ethical content is non-existent.

3) The Historical Setting

(1) The Old Testament Church

The failure to distinguish between the task of the church when it is free and when it is persecuted is a problem inherited from the past, but it reveals grave immaturity. The Bible gives us a balance. Most of the Old Testament represents God's word to free people with their own nation who were responsible for that nation. Even when they were in captivity, such people as Moses, Daniel, and Nehemiah had positions of responsibility and power and the Bible is very concerned to emphasize how they used their political influence for justice.

(2) The New Testament Church

The New Testament period shows us a church that has almost no privileges and almost no persons of influence. We see the koinonia of the Holy Spirit substituted for the political kingdom. The koinonia becomes the kingdom of God on earth, where his will is done and his righteousness (justice) is lived out.

(3) The Church Fathers

The so-called "Ante-Nicene Fathers" wrote theology in the context of a persecuted church with no privileges and no power. The "Post-Nicene Fathers" wrote in the context of a church with all the might of the Roman Empire at its height backing it and supporting it.

Suddenly, the church was in the same situation as the Old Testament Kingdoms of Israel and Judah. Yet the theology of the Post-Nicene

Fathers is hardly distinguishable from that of their predecessors. Failure to come to terms with the responsibilities thrust upon them by being in such a situation led to the deep dissatisfaction of the Nestorians, the Donatists, and the other groups who, eventually, went over entirely, or almost entirely to Islam.

(4) The Modern Scene

1500 years have gone by and nearly all the official theologies of the church still suffer from this serious defect. The theologies being taught in most of our seminaries are appropriate for underground, persecuted, powerless churches, as in China. A theology of justice is needed for those churches that are free and powerful. Unfortunately, those who have seen this need and have tried to formulate such a theology, have rejected, to a large extent, the other theologies, and have ended up with equally immature, defective, and incomplete theologies, themselves. They have been unable to solve the problems they set out to solve because of vital ingredients missing.

III. Conclusion

In conclusion, we may say that the dangers of immature theology are: an immature church which does not exhibit the love of Christ, but uses its energy in internecine warfare, destroying its witness and driving off strangers. Part of the truth is taught by each group, but none teaches the whole truth. It has resulted, in the Twentieth Century, in a shocking failure to meet the needs of the poor, so driving them into the arms of the Marxists, who have confused them, exploited them, and created untold

misery. Jesus prayed that all his disciples and all those who would believe on him through them would be one, even as God is one, so that the world might believe (John 17:21). Satan has done a masterful job of convincing the church that it is more important to assert a limited point of view as absolute than to join hands with fellow Christians for 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IV. Epilogue

Prophecy: The Twentieth century disaster : The Fragmented Gospel

What is 'the whole counsel of God'?(Acts 20:27)

The greatest tragedy of many centuries of church history was the failure of the church to proclaim the whole counsel of God at the turn of the 20th Century. Led by Henry George, the liberals and the Catholics proclaimed the Biblical solution to the dire economic problems the world was facing and championed, with all the energy at their disposal, the cause of the poor. Henry George wore himself out in the struggle, died at the age of 58, his body exhausted and his millions of followers leaderless because no one had told him of the supernatural strength God was offering him through the Holy Spirit.

The pentecostals were sweeping the world with demonstrations of the supernatural power of the Holy Spirit but they drove a wedge be-

tween themselves and the rest of the Body of Christ by making an issue of the Gift of Tongues. Though they were, themselves, the poor, they preached pie in the sky and ignored the great movement that had swept America and the English-speaking world and had even touched Russia with the Biblical doctrine of land: "The Land is mine, it shall not be sold forever."

The Pope issued a great encyclical but left the issue confused, failing to take a clear cut Biblical stand, to distinguish between "property" in land and all other forms of property.

R. A. Torrey taught the Baptism in the Holy Spirit, but did not see that the Gospel to the Poor meant he must try to win over the Pentecostals and work with the Georgists. He went around the world twice teaching the baptism in the Holy Spirit and set the fires that burst out only 2 years later in the pentecostal movement, yet he was unable to persuade them to take the Scriptural position rather than to make an issue of tongues. A few years earlier, D. L. Moody had been preaching with power and effectiveness a Biblical gospel, but failing to lend his support to the movement for Biblical justice led by Henry George.

The liberals supported Henry George, but saw no need to emphasize the Biblical basis of his teaching, being content to appeal to logic and reason. They were correct, but their disdain of the Fundamentalists and the work of the Holy Spirit left them without power and without punch. Tolstoy (and Dostoyevsky?) understood the message but could not persuade the Orthodox Church to repent.

When Henry George died in 1898 all the ingredients were there for a Whole Gospel that might have swept the world for missions, for the baptism in the Holy Spirit, for economic justice based squarely on the

Bible, for the unity of the Spirit in the church. But the Georgists went on with their fragment, the Fundamentalists went their way with their fragment, the Catholics ("Universal!") hugged their fragment and the Anglicans, claiming to be the Bridge, bridged nothing! A fragmented gospel was all the poor of the world heard and in despair they turned to Lenin.

Jesus had said, "If they are one, the world will believe." If the Social Gospel and the Full Gospel had only joined hands, the world might have believed and not only the greatest missionary movement of history have swept the globe, but also a Biblical system of justice. Instead, Lenin's godless Marxism swept the globe and the 20th Century has been a century of bloodshed and violence with growing desperation, incredible poverty, ugly immorality parading openly as "freedom," hideous new diseases, and mass starvation in countries with plenty of agricultural land and three growing seasons. The problems of the 19th Century seem trivial by comparison.

We have not just lost 100 years, we have moved backwards 100 years. The missionary movement is reaching out today to peoples and tribes that no one even knew existed 100 years ago, but it still does not preach a Whole Gospel. The crash of communism is creating a void which will be filled by Islam and the New Age because God's messengers are too busy arguing among themselves instead of listening to and learning from one another and joining hands to proclaim the whole counsel of God. O God, have mercy upon us, have mercy! Open our eyes! Bring us to repentance! Sell us eyesalve that we may see! Sell us clean garments (Rev. 3:18). Make us willing to pay any price, if only we may cover our shame and regain our sight. O God, have mercy!